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on grandmother-grandchild intimacy

이신숙**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Lee, Shin Sook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The National Suncheon Univ.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ndergraduate students' intimacy toward the grandmother and their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he study also identifies the variances that influence undergraduate students' intimacy toward the grandmother.

The subjects were 397 undergraduat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t-test, Duncan 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undergraduates' attitudes were mid-range, but their intimacy level toward their grandmother was high.
- 2) The undergraduates' intimacy level toward the grandmother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experience of cohabitation, the presence of her, and religion, and it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raits, period of cohabitation, and frequent contact with the grandmother.

The undergraduates' intimacy level toward grandmother-in-low, howeve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ligion. There was also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raits..

- 3)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undergraduates' intimacy level toward the grandmother were attitude, frequency of contact with the grandmother, gender, period of cohabitation, experience of cohabitation, and the presence of the grandmother, which explained about 35% of total varianc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raits were very important variables for undergraduates' intimacy with their grandmother. The undergraduates' intimacy toward grandmother-in-low was affected by the variables of attitude, religion, experience of volunteer, frequency of contact with the grandmother, gender, and the presence of grandmother, which explained about 24% of the total varianc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raits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undergraduates' intimacy with their grandmother-in-low.

Key Words : undergraduate student, the elderly and aging, attitude, grandmother-grandchild, intimacy

I. 서론

인간 삶의 최대 염원이었던 수명연장은 오히려 21C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최대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구성원 중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에 대한 복지는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라기보다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노인의 삶의 질이 윤택하게 되는 것은 노인 개개인이 갖는 개인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둘러싼 환경인

* 이 논문은 2006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 과제로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Lee, Shin Sook

Tel: 061) 750-3673, Fax: 061) 750-3670

E-mail: lsi@sunchon.ac.kr

사회적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따라서 노년기를 살아가는 노인의 사기를 높이며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연장자를 귀히 여기며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서구 문물과 가치관의 유입으로 현대에는 노인을 아프고, 무능력하고, 고집이 세고, 옛것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모선희, 김형수, 윤경아, 2006).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과거로부터 경험해 온 노년과의 접촉에서 나타날 수 있고 대중매체 등에서 잘못 다루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은 노인에 대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며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게 되어 노인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자의식과 자존감은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은 사회구성원들이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사실인 것처럼 노인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대학 시기는 청년들이 그들의 자아정체감을 갖기 위한 유예기간을 제공받는 시기로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 실험하게 된다. 또한 그 시기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과도 접하게 되며 심리적으로도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주변의 변화를 쉽게 수용하고 또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청년기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장 쉽게 감지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처한 학생들이 노인과 노화에 대해 갖는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선결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차용은, 1980; 박경란, 이영숙, 2001).

노인에 대해 갖는 개인적인 태도는 노년과의 관계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고정관념과 태도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인들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부모는 손자들이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현대 핵가족에서는 조부모와 별거하는 경우가 많고 세대 간에 서로 상이한 가치관을 갖는 경우가 많아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소원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갖는 이점과 길어지는 노년기에 대비한 가족 내 노인의 역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 내 여러 문제가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갖는 의미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조부모 중에서 손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조모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랜 평균수명을 지닌 관계로 조모는 더 오랜 기간을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도 표현적인 역할을 주도하며 때에 따라서는 부모를 대신해 주는 친족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민하영, 2004; 신기영, 1991)은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는 중간세대인 성인자녀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딸)는 조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간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양육행동에 직·간접으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외조모에 대해 손자녀도 심리적으로 더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모와의 관계(친조모, 외조모)에 따라 손자녀인 남녀대학생의 친밀도와 남녀대학생들이 갖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남녀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와의 친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남녀대학생의 노인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모-손자녀 간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노인과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는 일일 것이다.

과거 우리의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며 친족중심의 가족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연장자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며 가족 중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노인은 점잖은 집안의 어른이었으며 성스러운 존재로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소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단위가 적어지고 노동력의 효율성과 유용성이 높이 평가받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은 점차 의존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하면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노인을 종종 몰이해를 하거나 무관심 속에서 왜곡되어 받아들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노인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연령차별주의(ageism)에 기초하고 있으며 젊음이 미화되는 사회에서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9). 거기에다가 신문, 잡지, T.V. 등의 대중매체에서도 노인을 묘사함에 있어 수다스럽고 무기력하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 노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형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노년학 연구의 한 일환으로 시작된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미국에서 1950년대에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수행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인 젊은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 아동을 비롯하여 대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들이 행해졌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매사를 잘 잊어버리고, 불평이 잦고, 따분하고, 고독하고, 심술궂고, 느리고, 잔소리가 많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어렵고, 비생산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한다(김은경, 2003; 김은일, 1981; 노대호, 1997; 박정란, 이영숙, 2001; 서병숙, 김수연, 1999; 이인수, 2000; 한정란, 2000; Chamberlain et al., 1997; Davidson et al., 1995; Hummert et al., 1997; Mitchell et al., 1985; Pinquart & Wenzel., 2000; Seefeldt, 1989).

서병숙과 김수연(1999)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남녀 대학생들이 노인을 비활력적, 의존적, 비관적, 왜소한, 탐욕스러운, 느린, 고집 센, 보수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한정란(2000)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노인을 지루하고, 쇠약하고, 고지식하고, 의존적, 보수적, 매력이 없고, 불평이 많은 존재로 여기고 있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우리사회의 노인에 관한 교육의 부재와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그 원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Kogan과 Shelton(1962)의 연구에서는 젊은이들은 노인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존재, 기쁨을 가족에게만 기대하는 존재, 대화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고 하였다(홍숙자, 2004에서 재인용). 아동에게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를 조사한 Falchikov(1990)는 아동들은 노인의 형상을 젊은 사람에 비해 작게 그리거나 지팡이에 의존한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노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편견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곽필선, 1980; 신귀연, 1995; 옥은진, 1990; 윤성혜, 1990; 최춘혁, 1992; Ivester & King, 1977; Nishi-Strattner & Myers, 1983; Palmore, 1999)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태도

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신숙과 Sonia(200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한·미 남녀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현명함, 친절함, 박식함, 행복함, 신뢰할 수 있는, 관대함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개방적인, 활동적인, 건강함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 단계별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다. 이선자(1989)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청년기에 이르면 부정적인 태도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령증가에 따라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Couper와 그의 동료들(1995)이 행한 어린이 대상의 연구에서도 나이 어린 아동들이 더 나이든 아동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짐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별에 따라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는데 선행연구(서병숙, 김수연, 1999; 한정란, 2000; Hawkins, 1996)들은 대학생들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을 더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노인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모선희외, 2006)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좀 더 부정적이며 그 이외에도 노인과 동거경험, 접촉빈도, 노인과 관계의 질, 부모 특히 모의 태도(가정교육), 거주지역, 대중매체 등이 작용한다.

2. 조모-손자녀 관계

손자녀에게 있어 조부모는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로 손자녀의 사회화 및 심리적 발달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조모는 혼인연령과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더 오랜 기간을 손자녀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성이 가족생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조모가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조부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모는 손자녀를 통하여 생의 연속감을 느끼고 손자녀에게 인생을 통한 경험과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생산감을 가진 노년기의 통합을 이루게 된다(홍숙자, 2004). 손자녀 역시 조모를 통해 심리적 발달과 문화적 지식 및 가족 역사를 전달받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 가족 역시 친밀한 조모-손자녀 관계를 통하여 가족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가족의 역사성을 갖게 된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모-손자녀 관계가 가족의 규모가 적어지는 가족생활의 영향으로 조모와 손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줄어들어 그 상호작용이

한때 소원해졌지만 최근에는 기혼여성의 맞벌이 증가와 모의 부재가 빚어내는 다양한 가족문제로 인해 다시 조모의 역할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조모-손자녀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조모의 역할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조모는 친족구조(혈연관계)에 의해 친조모와 외조모로 나누어 손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부계는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적관계가 더 강하게 작용하여 가계계승에 더 많은 초점이 주어지지만 모계는 애정적 유대감이 더 높은 정서적 관계로 인식된다. 따라서 친조모와 외조모 여부에 따라 조모-손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상호작용의 내용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행적인 핵가족을 지향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손자녀들은 외조모에 대해 더 빈번한 상호작용과 함께 친밀감을 갖는다고 선행 연구들(이신숙, 2006; Hoffman, 1980; Kahana & Kahana, 1971; Matthew & Sprey, 1985)은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동인(1991)은 여성이 남성보다 방위가족에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친족유지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외조모와 모 간에는 고부갈등이 없어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외조모는 친조모보다 손자녀에게 더 많은 개입을 하며 딸의 양육행동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신기영, 1991). 조모와 모 간에 이루어지는 강력한 유대관계는 손자녀에게로 전달되어 조모-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모와의 친밀감을 조사했던 이신숙(2006)의 연구에서도 양국 대학생 모두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에게 더 많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동인(1991)의 연구에서도 손자녀의 외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가 친조모에 대한 친밀도보다 높았다. 그리고 손자녀가 친조모에게는 훈계자의 역할을, 외조모에게는 대리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여 혈연관계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부모와의 관계를 조사한 박의순(1990)의 연구에서도 손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조부모는 조모였으며 그 중에서도 외조모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답하였다고 하였다.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Hartshorne와 Manaster(1982), Hoffman(1980)도 대학생들이 외조모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여기고 있어 성과 친족지위를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조모-손자녀 관계의 질에는 중간세대인 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ssi와 Rossi(1990)는 이러한 현상을 세대관계에 있어 모계측의 이점이라고 하면서 모가 행하는 “친족유지(kinkeeping)”의 결과라고 하였다.

3.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에 대한 관련 변수

선행연구들은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에 대한 관련 변수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조모와의 동거여부와 접촉빈도, 성별 등을 들고 있다(김은경, 2003; 박의순, 1990; 백문화, 1992; 이미숙외 2인, 2004; 이선자, 1989; 이신숙, 2006; 이영숙·박경란, 2000; Frank et al., 1993; Hawkins, 1996; Hoffman, 1980; Kahana & Kahana, 1971; Roberto, 1990).

먼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조모와의 친밀감이 있어서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조모와의 관계가 가까웠다고 이신숙(2006)은 밝히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은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신체적인 감퇴나 변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노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든 노인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듯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과 가깝게 하는 요인이 된다. 김혜경(1997)도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이 주변의 노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부모 등 가까운 노인에 대해서는 재미있고, 즐겁고, 애정적이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Hawkins, 1996; Palmore, 1999).

조모와의 동거여부 및 접촉빈도와 친밀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조모와의 동거가 손자녀와 친밀한 관계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들(서동인, 1989; 한정란, 2000)은 조모가 장기간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손자녀를 돌본다든가, 놀이나 게임 등의 공유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됨으로써 손자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Tinsley와 Parke(1983)는 조모와의 동거로 인한 잦은 접촉이 오히려 조모와의 관계의 질을 악화시켜 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모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조모와 자주 접촉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객관적인 유대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연구들(김연수, 1994; Kivett, 1985)은 말한다.

성(gender)은 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는데 대학생인 손녀는 손자보다 대화나 쇼핑, 가사도우미 활동을 많이 하고 손자는 오락 활동이나 발일 등으로 조모와 친밀감을 쌓는다고 하여(Kennedy, 1992) 조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성별은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조부는 손자와 더 가깝고 조모는 손녀와 더 친밀한 경향을 보인다(Kahana & Kahana, 1971). Hoffman(1980)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이 가장 가깝게 여기는 조부모는 외조모라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남 S시 소재의 S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는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는데 전 4개 학년의 5개 단과대학 학생을 의도적으로 추출한 유의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조사된 질문지 500부 중 총 397부가 최종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이다. 질문지에 사용된 척도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을 측정하는 문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배경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내용과 작성과정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척도는 Sander와 그의 동료들인 Montgomery, Pittman, Balkwell(1984)이 함께 개발한 것으로 노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양 극단에 반대되는 형용사에 대해 그 정도를 응답하게 하는 20쌍의 의미분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사용하였다. 태도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답하게 하였는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하였다(최저:20점-100점:최고). 그리고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의 범위가 50점에서 70점까지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 척도는 Walker & Thompson(1983)에 의해 만들어진 Intimacy Scale(IS)를 본 연구자가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척도를 통해 친조모와 외조모와의 관계를 진술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답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답하게 하였는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친조모, 외조모 간의 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최저:15점-75점:최고). 그리고 친조모와 외조모와의 친밀감 점수의 합을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의 정도로 해석하였다.(최저:30점-150점:최대). 친밀감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3) 배경변인

본 연구의 배경변인으로는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는 성별, 전공, 학년, 경제상태(월 평균수입), 종교, 자원봉사 경험, 현재 조부모와의 동거유무,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동거기간 등을 알아보는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A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의 정도 및 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하였으며 배경변인과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 따른 친밀감의 정도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 F(t) 검정 그리고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3)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남녀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남녀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대학생(N=397)	
		N (%)	
성별	남	180(45.3)	
	여	217(54.7)	
전공	자연 과학	84(21.1)	
	인문, 사회과학	99(24.9)	
	사범대	60(15.1)	
	공대	79(19.9)	
	농대	75(18.9)	
학년	1 학년	150(37.8)	
	2 학년	102(25.7)	
	3 학년	94(23.7)	
	4 학년	51(12.8)	
경제상태	100만원 이하	51(12.8)	
	101-200만원이하	114(28.7)	
	201-300만원이하	140(35.3)	
	301만원 이상	92(23.2)	
종교	유	209(52.6)	
	무	188(47.4)	
자원봉사여부	유	152(38.3)	
	무	245(61.7)	
접촉 횟수	친조모	거의 만나지 않음	76(19.1)
		1년에 3-4 번	150(37.8)
		1달에1-2번-거의매일	171(43.1)
	외조모	거의 만나지 않음	53(13.4)
1년에 3-4 번	264(66.5)		
1달에1-2번-거의매일	80(20.2)		
현재 동거여부	친조모	동거	67(16.9)
		별거	254(64.0)
		안 계심	76(19.1)
	외조모	동거	9 (2.3)
별거		337(84.9)	
안 계심	51(12.8)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유	236(59.4)	
	무	161(40.6)	
동거기간	5년 미만	90(22.7)	
	5년 이상	146(36.8)	

2. 남녀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의 정도

1) 남녀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남녀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와 같이 남녀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점수는 64.8점으로 중립적인 태도 점수의 범위인 50점-70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남자대학생의 태도점수는 66.0점, 여자대학생들의 태도점수는 63.8점으로 남자대학생들의 태도점수가 여자대학생들의 태도점수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이 영향을 미쳐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나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정영숙, 1990; 조명희, 1987; 차용은, 1980; 최춘혁, 1992; 한정란, 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남녀 대학생들의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

남녀 대학생들의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의 정도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남녀 대학생들의 조모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는 3.47점으로 친밀감 점수의 중앙치인 3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조모에 대한 친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를 혈연관계로 세분하여 살펴 보면 친조모에 대해서는 3.40점이고 외조모에 대해서는

<표 2>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노모-손자녀 간의 친밀도

		대학생 (N=397)		t 값
		남자대학생 (N=180)	여자대학생 (N=217)	
		M(SD)	M(SD)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66.0(10.5)	63.8 (8.5)	5.14***
		64.8(9.5)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	친조모	53.6(11.2)	48.6(13.4)	17.23***
	외조모	53.0(11.7)	53.2(10.8)	-0.06
	전체	53.3(11.5)	50.9(12.1)	8.90***
	친조모 외조모	51.1(12.7) 53.1(11.2)		-5.22***
	전체	104.2(12.0)		

***P<.001

3.54점으로 전체 학생들이 외조모에 대해서 더 높은 친밀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대학생들이 조모에 대해서 갖는 친밀감의 정도가 3.55점으로 여자대학생들이 갖는 친밀감 점수인 3.39점보다 높아 조모에 대해 높은 애정적 유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태도점수를 나타낸 결과와 일맥 상통하고 있다. 남녀 대학생별로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친조모에 대해,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외조모에 대해 높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남녀대학생 손자녀가 친조모보다 외조모에게 심리적 친밀감을 더 느낀다는 본 연구 결과는 중간세대인 어머니의 영향과 가족관계(친가는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며 외가는 친밀하고 비형식적인 성격을 지님)가 갖는 특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박의순, 1990; 민하영, 2004; 서동인, 1991; Hartshorne & Manaster, 1982; Hoffman, 1980)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석미(1981)의 연구에서는 조부모들은 외손자보다는 친손자를 더 가깝게 여긴다고 하였다.

3) 남녀 대학생들의 배경변인과 태도에 따른 조모와의 친밀감

남녀 대학생들의 배경변인과 태도에 따른 조모와의 친밀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명목변수는 변량분석을 그리고 서열변수는 상관관계를 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먼저 친조모와의 친밀감은 표에서와 같이 성별($F=17.23$, $P<.001$),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여부($F=5.45$, $P<.01$),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F=3.88$, $P<.05$), 종교($F=3.43$, $P<.05$)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r=.4143$, $P<.001$), 조모와의 동거기간($r=.2401$, $P<.001$), 친조모와의 접촉빈도($r=.203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었던 학생보다, 현재 친조모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친조모와의 관계는 더 친밀하였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조모와의 동거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수록,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친조모와의 유대감은 높았다.

한편 외조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교($F=4.32$, $P<.05$)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r=.2982$,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외조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이었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외조모와의 관계도 친밀하였다.

남녀대학생들의 경우 친조모와 접촉빈도가 높을 때 친조모와의 친밀감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조모와 손자녀 간에 규칙적인 접촉이 있을 때 관계는 역동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 간의 관계는 관념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서동인(1989)의 연구에서도 접촉빈도는 조모의 역할수행에 유의한 변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친조모와의 동거기간이 길어질 때 조모와의 친밀감이 높았던 것은 조모와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유대감 형성이 용이하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많아져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이신숙, 2006)에 의하면 미국대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높을 때 친밀감이 낮아지고 있어 미국의 경우에는 접촉빈도가 친밀도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접촉빈도가 조모-손자녀 간의 관계에는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대학생의 경우가 여자대학생의 경우보다 친조모와 더 친밀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도 가계계승을 위해 존재하는 남아선호사상이 친조모와 손자녀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친조모, 외조모 모두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이신숙(2006), 김혜경(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4)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계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계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다음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남녀대학생들의 친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beta=0.332$), 친조모와의 접촉횟수($\beta=0.317$), 성별($\beta=0.130$), 동거기간($\beta=0.072$),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beta=0.062$),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beta=0.024$)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5% 이었다. 그 중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17%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조모와의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남학생일 때, 동거기간이 길수록, 과거 조모와 동거경험이 있을 때, 현재 친조모와 동거할 때 친조모와의 친밀감은 높았다.

한편 남녀대학생들의 외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beta=0.319$), 종교($\beta=0.239$), 자원봉사 경험($\beta=0.206$),

<표 3> 배경변인과 태도에 따른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

변인	구분	친조모와의 친밀감			외조모와의 친밀감				
		M(SD)	Dun.	t/F 값	M(SD)	Dun.	t/F 값		
성별	남	53.6(11.2)	A	17.23***	53.0(11.7)	A	0.06		
	여	48.5(13.4)	B		53.2(10.8)	A			
단과대학	자연대	50.1(11.6)	A	0.83	53.3(10.6)	AB	1.85		
	인사대	50.4(13.5)	A		51.6(12.9)	B			
	사범대	49.7(12.9)	A		53.5(9.9)	AB			
	공대	52.2(12.5)	A		51.9(11.9)	B			
	농대	52.0(12.9)	A		55.8(9.2)	A			
종교	유	51.9(13.5)	A	3.43*	54.2(11.1)	A	4.32*		
	무	49.6(11.7)	A		51.9(11.2)	B			
자원봉사 여부	유	51.4(13.0)	A	0.62	52.3(12.3)	A	1.31		
	무	50.4(12.6)	A		53.6(10.5)	A			
현재 조모와의 동거여부	친조모	동거	54.6(14.1)	A	3.88*	50.8(12.5)	A	2.21	
		별거	50.1(12.3)	B		53.9(10.8)	A		
		안계심	49.7(12.3)	B		52.5(10.9)	A		
	외조모	동거	50.2(8.4)	A		0.17	58.3(7.9)		A
		별거	50.9(13.0)	A			52.7(11.0)		A
		안계심	49.9(11.8)	A			55.1(12.5)		A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유	52.0(13.5)	A	5.45**	52.9(11.4)	A	0.22		
	무	49.1(11.3)	B		53.4(10.9)	A			
학년			$r = -.0057$			$r = -.0081$			
경제상태			$r = -.0094$			$r = -.0178$			
접촉빈도(친조모)			$r = .2037***$			$r = .0678$			
(외조모)			$r = -.0409$			$r = -.0003$			
조모와의 동거기간			$r = .2401***$			$r = -.0389$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r = .4143***$			$r = .2982***$			

* $P<.05$, ** $P<.01$, *** $P<.001$

친조모와의 접촉횟수($\beta=0.196$), 성별($\beta=0.155$),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경험($\beta=0.149$)의 순이었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4%이었다. 친조모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외조모와의 관계에서도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10%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어 영향력이 많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종교를 가질수록, 자원봉사의 경험이 없을수록,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여학생일 때, 현재 친조모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외조모와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V. 요약 및 제언

그동안 우리사회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가치관이 높아지면서 조모-손자녀 간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웠으나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기혼여성의 사회

진출, 높은 이혼율 등의 가족 내 문제발생은 조모-손자녀 간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이 노인과 노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조모(친조모, 외조모)와의 친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모-손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점수는 64.8점으로 중립적인 태도 점수인 50점-70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중립적이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대학생의 태도점수는 66.0점, 여자대학생들의 태도점수는 63.8점으로 남자대학생들의 태도점수가 여자대학생들의 태도점수보다 높았다.

한편 남녀 대학생들의 조모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는 104.2점으로 친밀감 점수의 중앙치인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조모에 대한 친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

<표 4> 노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

변인	친조모와의 친밀감			외조모와의 친밀감		
	B	β	R ² (step)	B	β	R ² (step)
성별	-3.458*	-0.130	0.02(3)	3.802***	0.155	0.02(5)
전공	-0.524	-0.057		0.890	0.105	
학년	-0.603	-0.048		-1.112	-0.095	
경제상황	-0.687	-0.050		-1.047	-0.082	
종교	1.037	0.039		6.962***	0.239	0.04(2)
자원봉사 경험	0.628	0.025		-5.080***	-0.206	0.04(3)
접촉횟수(친조모)	5.540***	0.317	0.06(2)	6.243***	0.196	0.03(4)
(외조모)	-1.408	-0.061		-2.450	-0.116	
현재 조모와의 동거여부						
(친조모)	-5.278**	-0.240	0.01(6)	6.874***	0.149	0.01(6)
(외조모)	-3.770	-0.103		-5.549	-0.163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16.517***	0.062	0.01(5)	-2.550	-0.103	
동거 기간	10.965***	0.072	0.01(4)	-1.913	-0.136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4.439***	0.332	0.17(1)	3.950***	0.319	0.10(1)
	Constant	63.85		Constant	10.20	
	R ²	0.35		R ²	0.24	
	F value	9.21***		F value	4.62***	

가변수화(Dummy) 성별 : 남=0, 여=1
 전공 : 자연대=0, 그 이외=1
 종교 : 무=0, 그 이외=1
 자원봉사경험 : 무=0, 유=1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 : 동거=0, 그 이외=1
 현재 외조모와의 동거여부 : 동거=0, 그 이외=1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 무=0, 유=1
 * P<0.05, ** P<0.01, *** P<0.001

를 혈연관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친조모에 대해서는 51.1점이고 외조모에 대해서는 53.1점으로 외조모에 대해서 더 높은 친밀감을 지니고 있었다. 대학생을 남녀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남자대학생들은 53.3점을 나타내 여자 대학생들의 친밀감 점수인 50.9점보다 높아 조모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대학생들의 친조모와의 친밀감은 성별,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 종교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조모와의 동거기간, 친조모와의 접촉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었던 학생보다, 현재 친조모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친조모와의 관계는 더 친밀하였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조모와의 동거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수록,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친조모와의 유대감은 높았다.

한편 외조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외조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이었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외조모와의 관계도 친밀하였다.

셋째, 남녀 대학생들의 친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친조모와의 접촉횟수, 성별, 동거기간,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5% 이었다. 그 중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17%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조모와의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남학생일 때, 동거기간이 길수록, 과거 조모와 동거경험이 있을 때, 현재 친조모와 동거할 때 친조모와의 친밀감은 높았다.

한편 남녀대학생들의 외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종교, 자원봉사 경험, 친조모와의 접촉횟수, 성별,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경험의 순이었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4%이었다. 외조모와의 관계에서도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10%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어 영향력이 많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종교를 가질수록, 자원봉사의 경험이 없을수록,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여학생일 때, 현재 친조모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외조모와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모-손자녀 간의 유대감으로 인해 조모는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를 줄이고 손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적 관계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손자녀는 조모의 내리사랑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심리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이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녀대학생들이 조모와의 친밀감이 높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조모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남녀 대학생들의 조모와의 친밀감에 가장 영향을 미친 변인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녀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조모와의 친밀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인과 노화를 개인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노인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초,중,고,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노인관련 교과목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켜 수강하게 함으로써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이미지 형성에는 신문, 잡지, T.V. 등 대중매체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매체들이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을 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친조모와의 친밀감에 접촉빈도는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볼 때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요하다 보겠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대학생 손자녀와 조부모 간에 공유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조손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모와 손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전화연락 등의 통신을 이용하는 방법도 유용하겠다. 최근(2006.5)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유치원에 다정한 할머니 손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모와 손자녀 간에 잦은 접촉을 꾀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조부모

가 부재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수양조부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회관, 지역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노년층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공유활동을 늘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화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며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조사가 있어 전남 S시에 소재한 S대학교 학생만을 표집의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지 조모를 혈연관계에 의해 친조모와 외조모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생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모가 생존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거 조모와의 관계경험을 기억에 의존하여 유추하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주제어 : 남녀 대학생, 노인과 노화, 태도, 조모-손자녀, 친밀도

참 고 문 헌

- 곽필선(1980).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수(1994).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2003). 조부모 관련변인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 23(3), 63-77.
- 김은일(1981). 노인에 대한 간호 대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 이민 가족 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 간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노대호(1997).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 논문.
- 박경란,이영숙(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2), 71-83.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

- 대 석사학위 논문.
- 백분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모선희,김형수,윤경아(2006).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 민하영(2004).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23-34.
-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7(2), 45-60.
- _____(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김수연(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신귀연(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육은진(1990).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차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1994). 한국의 전통 육아방식.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성혜(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조병은,강란혜(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 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 이선자(1989). 연령 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신숙(2006). 한,미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4(5), 53-68.
- 이신숙,Sonia.S.(2005).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95-218.
- 이영숙,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6.
- 이인수(2000). 농촌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123-135.
- 정영숙(2000).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
- 조명희.(198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 분석. *지역환경*, 5, 73-87.
- 조석미(1981).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구조-대구시 중류층 노인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9(2), 239-262.
- 최춘혁(1992).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홍숙자(2004). 노년학개론. 하우.
- Chamberlain,V.M., Petterman,E., & Maher,M.(1997). Children's attitudes toward elders. *J.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89, 31-35.
- Couper,D.P., Donorfio,L., & Goyer,A.(1995). *Final report : Images of aging : Children's attitudes*.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 Davidson,D.(1996). *The role of schemata in children's memory*. In H.W.Reese(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26(35-58). New York : Academic Press.
- Falchikov,N.(1990). Youthful ideas about old age : An analysis of children's drawings. *International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1, 79-99.
- Franks,L.J., Hughes,J.P., Phelps,L.H., & Williams,D.G.(1993).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on midwest college students by their grandparents and significant elders. *Educational Gerontology*, 19(3), 265-272.
- Hartshorne,T.S. & Manaster,G.J.(1982).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 contact, importance, role conception. *International J. of Aging & Human Development*, 15, 233-245.
- Hawkins,MJ.(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80.
- Hoffman,E.(1980). young adults' relations with their grandparents ;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 299-310.
- Hummert,M.L., Garstka,T.A., & Shaner,J.L.(1997). Stereotyping of older adults : The role of target facial cues and perceiver characteristics. *Psychology and Aging*, 12(1), 107-114.
- Ivester,C., & King,K.(1977).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17, 85-89.
- Kahana,E.,& Kahana,B.(1971).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on grandparenthood.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61-268.
- Kennedy,G.E.(1992). Shared activitie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70, 211-227.
- Kivett,V.R.(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 Patterns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 565-571.
- Matthews,S,& Sprey,J.(1985). The impact of divorce on grandparenthood ; An exploratory study. *The*

- Gerontologist*, 24. 41-47.
- Mitchell,J., Wilson,K., Revicki,D., & Parker,L.(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aging :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fferences by age, sex and race. *The Gerontologist*, 25. 182-187.
- Nishi-Stratner,M., & Myers,J.(1983). Attitudes toward older individuals :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Educational Gerontology*, 8. 389-397.
- Palmore,E.B.(1999). *Ageism : Positive and negative*. New York : Springer.
- Pinquart,M., & Wenzel,S.(2000). Changes in attitudes among child and elderly adults in intergenerational group work. *Educational Gerontology*. 26(6). 523-540.
- Roberto,K.A.(1990). *Grandparent and grandchild relationships*. In T.H. Brubaker(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2nd ed.). Sage Pub.
- Rossi,A.S. & Rossi,P.H.(1990). *Of human bonding: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Y;Aldine de Gruyter.
- Sanders,G.F., Montgomery,J.E., Pittman,Jr.J.F., & Balkwell, C.(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eefeldt,C.(1989). Intergenerational programs-impact on attitudes. *J. of Children in Contemporary Society*, 20. 185-194.
- Tinsley,B.,& Parke,R.(1983). *Grandparents as support and socialization agents*. In M.Lewis(Ed.), *beyond the dyad*. New York Plenum.
- Walker,A.J.& Thompson,L(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9.

(2007. 03. 05 접수; 2007. 05. 29 채택)